

## 제목: 영원히 썩지 않게

### S#1. 거리, 낮

은지(31세, 여)와 그의 연인이 마주보고 서 있다. 그의 연인은 은지를 두고 가버린다. 코트를 펼럭이며 사라지는 은지의 연인. 멍하게 서 있는 은지. 쪼그려 앉아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는다.

은지

(n.)

그 애랑 헤어졌다. 1월 겨울에.

### S#2 은지의 작업실, 낮

자리에 앉아 가방을 뒤적거리는 은지. 은지의 가방 속에서 물건들이 하나씩 나온다. 나뭇가지, 돌멩이, 대출 진단지가 작은 지퍼백에 담겨있다. 마치 형사 사건 현장의 증거물 같은 모양.

은지는 장갑은 낀 손으로 돌멩이를 들고 냄새를 맡는다.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간다. 쿼퀴한 흙냄새. 매연 냄새.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냄새를 맡는다. 또 글씨를 쓴다. 말라비틀어진 낙엽 냄새....

그리고 공병에 에탄올과 오일들을 넣는다.

은지

(n.)

그 냄새를 향수로 만들었다.

은지는 자신의 책상에 '헤어진 날 바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향수를 올려둔다.

은지의 주변에는 빈 에탄올 병이 점점 쌓여간다. 그만큼 은지의 책상에 놓인 향수도 많아진다.

은지

(n.)

계속 만들었다.

편지지에 코를 받고 냄새를 맡는 은지. 종이에 무언가를 써내려간다.

은지는 향수 하나를 책상 위에 둔다. 향수 병에 '그 애가 눈물을 5 방울 흘리며 쓴 편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은지  
(n.)  
이 날도.

손가락과 사진 한 장, 영수증을 늘어놓고 하나 하나 냄새를 맡는 은지.  
은지의 책상에 향수가 하나 추가된다. '그 애와 만난지 87일 됐을 때 사용한 손가락'

은지  
이 날도.

현관문 앞에서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은지.  
은지의 책상에 향수가 생긴다. '헤어지니 50일 됐을 때, 그 애의 문에서 나는 냄새.'

[Title: 영원히 썩지 않게(가제)]

### S#3 은지의 작업실, 낮

상가 앞에 서서 명함을 보는 민수. 명함에는 은지의 작업실 이름과 '모든 기억을 향수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백팩에 크로스백을 하나 매고 거대한 쇼핑백 2개를 들고 있는 민수. 은지의 향수들을 구경하고 있다. 그에게 다가오는 은지.

은지  
오늘 의뢰하신 분?  
(민수를 위 아래로 훑어보더니)  
이게 다...?

민수  
(멋쩍은 듯)  
4년이라서요.

은지  
캐리어를 끌고 오지 그랬어요.

민수  
아... 예.

짐을 풀기 시작하는 민수. 카페 테이블에 물건이 하나씩 쌓인다. 인형, 편지, 노트북부터 돌멩이, 다 쓴 립밤,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초콜릿 껍데기.

민수

(초콜릿 껍데기를 부시적거리며)  
이게 유경이가 처음으로 줬던 선물이에요. 사귀기 68일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더라고요.  
먹으면 사귀어준다는 건 줄 알고 먹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듯이 눈을 감으며)  
그리고 배탈이 났어요.

은지  
유감이네요....

은지는 물건 더미 속에서 꼬치 하나를 꺼낸다.

은지  
이건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  
유경이랑 헤어지기 39일 전에 같이 먹었던 닭꼬치예요.

은지  
그 정도면 버릴 법도 한데....

민수  
(촉촉한 목소리로)  
술먹고 꼬장부리는 제가 팔도 보기 싫다고 이걸로 제 팔을 찔렀어요.  
헤어지기 5일하고 6시간 25분 전에.

민수가 옷 소매를 걷는다. 팔에 빨간 손톱 자국이 남아있다.

민수  
정확히 이 자리에 찔렸어요. 손톱으로 주기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jump cut.  
물건더미를 뒤적거리는 민수. 인형을 들고 있다.

민수  
이거는...

이번에는 후드티를 들고 있다.

민수  
이 색이 저랑 잘 어울린대요.

이번에는 찢어진 편지지를.

민수

어제 다시 만나자고 보냈다가...

은지

아.... 예....

은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핸드폰을 한다.

시집을 들고 있는 민수.

민수

이거는 제가 편지 써주려고...

거의 졸고 있는 은지.

민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민수

이건 편의점에서....

은지

(졸다가 깨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제 그만합시다! 벌써 2시간동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알죠?

]

민수

이걸로 향수를 만들면 유경이가 감동 받아서 돌아오겠죠?

#### S#4. 은지의 작업실, 낮->저녁

물건이 가득 쌓여있는 은지의 책상. 오일을 공병에 넣는 은지. 맞은 편에는 민수가 앉아있다.

은지

(민수에게 공병을 건네며)

이거 향 좀 맡아봐요.

민수

이거 토끼 인형에서 나던 그 향 맞죠?

좀 더 오래된 천 냄새랑 라벤더 향이랑 같이 나야 되는데.

은지

아 라벤더를 안 넣었다.

민수가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바람빠진 풍선을 든다.

민수

아. 이거는 처음 놀이공원에 갔을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79일 전에....  
그때 유경이가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머리띠를 쓰고.... 같이 롤러코스터도 탔거든요... 그때  
유경이가....

과거를 추억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민수. 은지는 민수에게 공병을 내민다.

은지

그 눈물 좀 모아봐요.

민수가 눈물을 짜내 공병을 은지에게 건넨다.

은지는 공병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다.

민수

그쪽도 제정신은 아니네. 아, 눈물 썩 들어갔어요.  
(은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향수를 카메라로 잡고.)  
근데 있잖아요.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짚어있는 향수를 가리키며)  
이런 향수는 왜 만든 거예요?

은지

(향수를 만드는데 열중하며)  
그 애가 아름다워서요. 그때의 아름다움이 썩지 않았으면 해서.

민수

그럼 왜 안 써요? 쓴 흔적이 없던데?

은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고)  
잊어버리면, 그때 써야지.

[jump cut.

은지는 물건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다가 종이에 냄새를 기록한다.  
책상에 가득 쌓여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내려간다.  
바닥에 산처럼 쌓이는 물건들.  
그런 은지를 구경하는 민수. 물건 사이에 파묻혀 있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은지 옆에서 구경하  
다가. ]

책상에 물건 다섯 여개가 나동그라다닌다.  
유경과 전화를 하고 있는 민수.

민수

자니? 안 자고 있지? 유경아. 유경아, 나랑 이야기 좀 해.

은지가 민수의 입에 아크릴판을 가져다 댄다.

민수

(아크릴판에 입을 대고)

내가 미안해!! 아니,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애절한 목소리로)

술 마시고 실수한 거야! 한 번 짬은 실수할 수 있잖아! 아니 이제 진짜 안 그럴게! 유경아!!

통화 종료음이 울려퍼진다.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본다. 수신 거절음이 울려퍼진다. 은지가  
마스크에 묻는 침을 모은다.

민수는 너털너털해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다.

민수

침도 향수에 넣어요?

은지

생동감있잖아요.

민수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을 한다.

## S#5. 은지의 작업실, 낮

은지 커다란 향수를 들고 있다. 그리고 맞은 편에 서있는 민수.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른  
다.

은지

다 댔어요.

민수가 비장하게 향수를 전달 받는다. 그리고 시향해보는 민수. 민수의 표정의 일그러지더니 화장실로 달려간다. 민수가 구토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우웬에에엑.  
민수가 성큼성큼 걸어나온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

민수

(화를 내며)

아니, 제가 언제 이런 향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유경이한테 이걸로 다시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럼 유경이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

(은지를 붙잡으며)

이거 아니죠? 이거 말고 다른 향수 더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민수의 화를 듣고 있는 은지. 민수의 표정이 괴상하게 일그러진다.

민수

(슬픈 목소리로)

완전 순사기꾼이네... 제 기억은 이렇게 않았다고요! 거기서 이런 향이 날 수 없었다고!

은지

(민수를 뿌리치며)

아니 그럼 뭘 바란 거야!

(물건 더미를 가리키며)

저기 저거 봐!! 저걸로 향을 만든다면서 향이 좋을 리가 없지!! 그거 다 집착이라고!!

민수

(어이없는 듯 멍해져서)

아니... 그러는 당신도 다를 줄 알아요? 저기 저 향수들은... 저건... 뭐 다 달라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당신도 제정신 아니라고....

은지

뭐? 뭐라고?

민수

(헛웃음 지으며)

네 향수도 똑같은 거야.

민수가 걸어 나간다. 혼자 남은 은지.

은지

(당황해서 멍하게)

아니야... 아니야....

## S#6. 은지의 작업실, 밤

은지, 불안한 듯 작업실을 배회한다.

은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아냐.... 그릴 리 없어.... 아냐.... 아름다웠잖아.... 그릴 리 없어.... 설마.... 내 기억은 달라....

그 애는 다르다고.... 아름다우니까.... 썩을 리 없으니까....

(향수를 하나 집어 들며)

나는 달라....

향수를 뿌려보는 은지.

은지

(멍하게 서 있다가 중얼거리며)

최악이야....

은지,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린다.

떨어진 향수가 바닥에 굴러다닌다.

## S#7. 거리, 낮.

은지가 향수병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를 버린다. 그리고 떠난다. 마치 은지의 연인이 은지를 떠났던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